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2월 두 번째 28권 4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President's Day의 의미와 유래
한미동맹 50주년 음악회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168의무대대 B중대



6면 자유 공간

이현규의 축구이야기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쥬얼리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무현 제 16대 대통령 취임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일반 국민, 국내외 손님 등 4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어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와 변화와 도약의 시대'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의 평화로운 관문, 동북아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국민통합, 부정부패 척결, 경제성장 등에 관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최근의 '북핵문제'에 대해 그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인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어떤 형태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해서는 안 되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호혜평등의 관계로 더욱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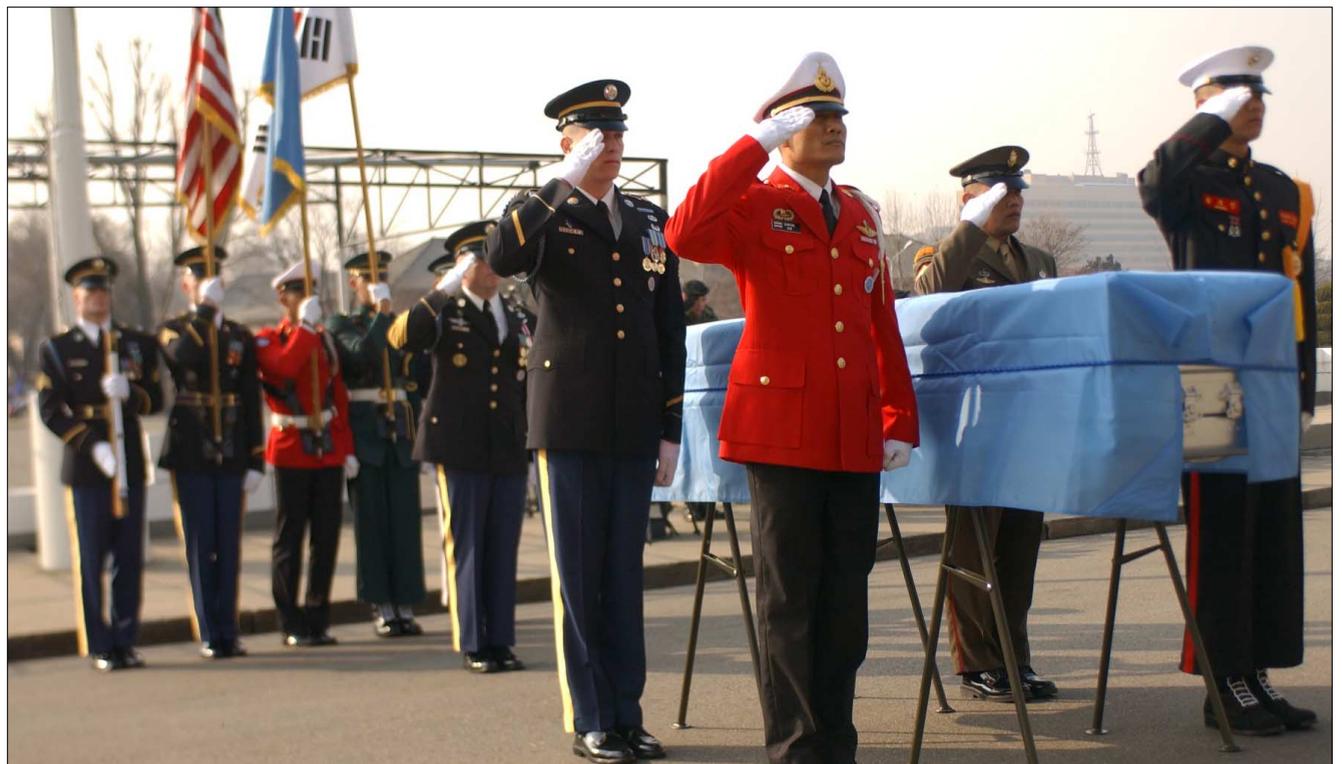
일병 강병삼



제공사진

노무현 제 16대 대통령이 25일 국회의사당 앞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6.25 참전 미군 유해 본국 송환



카투사 신문 장승모

지난 2월 14일 용산 메인 포스트에 위치한 한미연합 사령부에서는 미군 유해 본국 송환 행사가 있었다. 부산에서 발견된 이 유해는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인 것으로 추정된다. 행사가 끝난 후 이 미군 유해는 본국으로 송환 되었다. 사진은 행사중 의 장대가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 James N. Soligan 소장에게 경례하는 모습.

President's Day 의 의미와 그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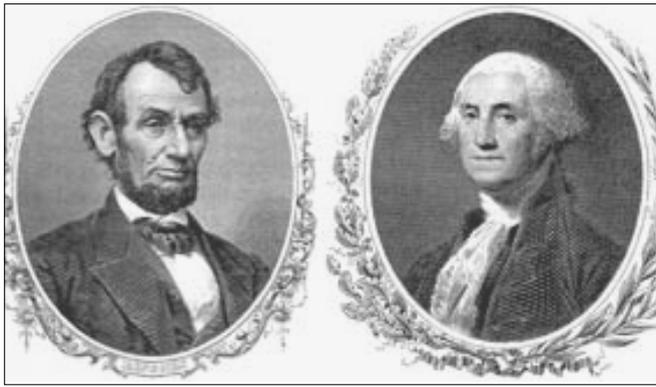
지난 2월 17일은 '대통령의 날 (President's Day)' 이라고 하여 미군들은 물론이고 전 카투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날은 미국의 공휴일 중의 하나로써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투사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의 날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의 날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 주한미군 정보처 소속의 Joey L. Brown 중사는 "대통령의 날이 되면 지난 날 미국을 이끌었던 많은 대통령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들의 리더쉽과 오늘날 미국이 있기까지 그들이 이룬 업적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미국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며 조국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날이 갖는 의미를 말했다.

이 대통령의 날은 현재에 있는 대통령은 물론 그동안 미국의 역사를 이끌어 온 모든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특히 이 날의 주인공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아버지'

로 숭상하고 있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후인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날이다. 그 동안 43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대통령이 바로 이들 두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건국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 한다. 처음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임기 마지막 해인 1796년부터 그의 생일인 2월 22일을 경축일로 정하여 매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선술집이나 동네 집회장에서 진심으로 워싱턴을 기리는 축하 연설과 축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으로 워싱턴을 기리는 축하 연설과 축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링컨이 암살당하자 의회에서는 링컨의 생일인 2월 12일에 추모 연설을 하였고 몇몇 주에서는 링컨의 생일도 경축일로 정하였지만 애초부터 링컨의 후인 노예해방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주에서는 경축일로 정하지 않아 전국적인 경축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마다 각기 각색으로 두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다가, 미국 정부는 1971년부터 워싱턴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 두 사람의 생일의 한 중간쯤이 되는 2월 셋째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정하고 공휴일로 공포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역시 역대 대통령들과 우리나라가 이들과 함께 걸어왔던 길을 한번쯤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병 장승모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판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색장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서서함 59호 미8군 본부종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미8군 사령관
 중장 찰스 씨 캠퐀
 한국군지휘단장
 대령 김덕곤
 미8군 공보실장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한국군지휘단 정훈과장
 대위 안등모
 편집장
 상병 김대동
 기자
 병장 이만석
 일병 강병삼
 일병 장승모
 이병 윤종필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Steven A. Boylan
 Information Strategy OIC
 MAJ Holly C. Pierce
 Editor
 CPL Kim, Dae Dong
 Staff Writers
 SGT Lee, Man Suk
 PFC Kang, Byung Sam
 PFC Jang, Seung Mo
 PVT Yoon, Jong Pil
 Special Assistant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비무장지대의 한미 동맹 50 주년 음악회



카투사 신문 윤종필

"We go together" 를 함께 부르고 있는 미 8군 군악대의 최성남 상병과 Richard Grooters 병장

지난 2월 23일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통일촌 교회에서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는 우정과 평화의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반미 감정이 심한 현재, 이런 음악회를 통하여 모든 한국인들이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50년 동안 쌓아온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열렸다. 통일촌 교회의 김수철 목사는 "젊은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이유도 모른 채 오는 일도 많은데 여중생 사망 사건 등으로 무작정 미움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반미 감정을 가진 이들은 일부 극소수이며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나아가, 이번 음악회를 토대로 여름에 있을 범국민적인 평화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음악회의 취지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국 무궁화 애호회 장동희 회장의 주관 아래 행해진 이번 행사는 통일촌 교회의 후원과 수원 기독교 남성 합창단, 미 8군 군악대와 합창단, 미 2사단의 협찬 아래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장동희 회장의 환영사와 미 2사단의 군중참모 Craig N. Wiley 중령의 조찬사로 2시간에 이르는 음악회는 시작되었다. 본 행사는 수원 기독교 남성 합창단과 미 8군 군악대의 노래와 음악, 축시 낭송으로 이어졌고 장동희 회장과 통일촌 교회 김수철 목사에게 감사패 증정이 있던 후 장동희 회장의 폐회사로 막을 내렸다.

음악회에서 한미 동맹을 위한 노래인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노래를 부른 미8군 군악대 소속의 최성남 상병은 "나의 작은 노력이 한미 동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미국내의 반한 감정과 한국내의 반

미 감정들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참여 소감을 표현했다.

처음부터 관심있게 음악회를 관람하던 506보병연대의 Jason Murphy 상병은 "이 음악회는 가치가 있었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더욱 원활한 관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반미 시위로 인하여 한국 사람들이 미군의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음악회 이후에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었다"며 관람 소감을 밝혔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한국 무궁화 애호회는 3, 4월에 국민운동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교단, 종교를 초월한 여러 평화단체들이 참여하며 몇 십만명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순수한 국민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병 윤종필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 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스페인의 특수부대

◆ Escadrilla de Zapadores Paracaidistas (EZAPAC)

스페인 공군은 소규모이지만 고도로 훈련된 공수전투공병부대 EZAPAC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작전이 가능한 중대급 규모의 부대로 총원은 약 300여 명이나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상당히 다양하며 이를 위해 많은 훈련을 받고 있다.



제공사진

고공낙하 훈련 전의 특수요원

이들의 임무는
-항공기 추락지점과 조종사 낙하지점의 식별과 표시
-구조기를 위한 지상표시 및 비행유도

-전투기 조종사의 타격을 위한 유도
-적 지형 데이터의 수집과 전송
-항공표적의 식별과 파괴
-공군시설의 보호
-수색구조 지원
-해공군 조종사에 대한 생존 및 탈출 기법 교육

EZAPAC은 스페인 공군 지휘부의 직접지휘를 받으며 임무유형별로 세분화된 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 부대원은 HALO 및 HAHO 등의 낙하기술 습득을 비롯한 모든 침투수단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는 HALO 점프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46년 스페인 공군 제1공수부대로 창설된 EZAPAC은 제2차대전중 활약을 보였던 독일군 특수타격대를 모델로 운용됐으며 1948년 최초의 낙하침투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1952년 본부를 알카라 드 헤나레스로 옮긴 후 대개편을 단행했다. 1957년부터는 이프니 전투에 참전했으며 1958년 귀환했다.

1965년 9월 9일 부대는 해체후 현재의 명칭과 편제로 재창설됐으며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스페인 공군부대의 보

호임무와 난민구조에도 일조하고 있다.

1993년 8월 이후부터는 보스니아에서 NATO의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칸반도에 파견된 스페인 부대의 진술항공통제임무도 병행했다.

1994년 9월부터 1995년 4월까지의 아프리카의 르완다에 파견되어 난민구조물자를 수송하는 수송기의 호위임무와 르완다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난민촌의 위치확인임무도 수행했다.

EZAPAC 지원병들은 4년여에 걸친 강도높은 훈련을 마쳐야만 EZAPAC 부대원으로 채용되며 첫 훈련은 낙하훈련으로 시작된다. 모든 훈련병들은 생존술, 통신, 응급처치, 침투 등을 비롯해 공중낙하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기초과정을 마친 훈련병들은 스페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대원들과 함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과정을 끝낸 병사들은 다시 EZAPAC으로 복귀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과정 중에는 외국어와 정보수집에 대한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 우방국가들과의 합동작전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각종 무기류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어떤 무기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태권도를 비롯한 무술도 연마하고 있다.



제공사진

훈련 받고 있는 스페인의 특수 요원들

EZAPAC 부대원들은 전술전기연마와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 미국의 특수전술팀, 프랑스의 공군특수부대, 포르투갈의 특수수색구조팀들과의 합동훈련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02년 12월 10일 인도양 근처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항해중이던 북한 선박 '서산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EZAPAC 부대원들은 헬리콥터 레펠을 이용해 서산호의 갑판에 내려 서산호의 화물을 조사하는데 참여했다고 스페인 언론들이 보도했다.

스페인 국방부는 특수부대원들이 서산호에 내렸다고만 발표했으나 스페인 언론들은 그들이 EZAPAC 부대원들이었다고 보도해 EZAPAC 부대원들의 활약상을 알렸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대구 지하철 참사에 관해 한마디



18의무사 168의무대대 B중대 일병 박정호

DFAC에서 아침을 먹다가 오열하는 유족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안일한 관리자들이 야속하고 화가 났지만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부대가 대구에 있었다면 사고 현장에 하얀 국화 한 송이 정도는 놓았을 것이다. 방화를 저지른 사람의 판단도 아쉽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부디 지금은 평안하길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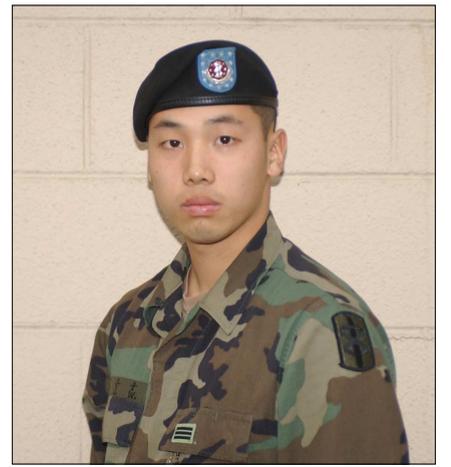
18의무사 168의무대대 B중대 이병 최민호

처음부터 지하철에서 동반자살하기 한 범인의 고의적인 계획이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담당 기관의 위험대처능력 미숙과 승객들의 안전 불감증이 피해의 범위를 더 크게 했다. 이런 원인들은 항상 대형 참사 뒤에 지적되는 문제점들이지만 지적만 될 뿐 고쳐지지 않는다는.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다.



18의무사 168의무대대 B중대 상병 임인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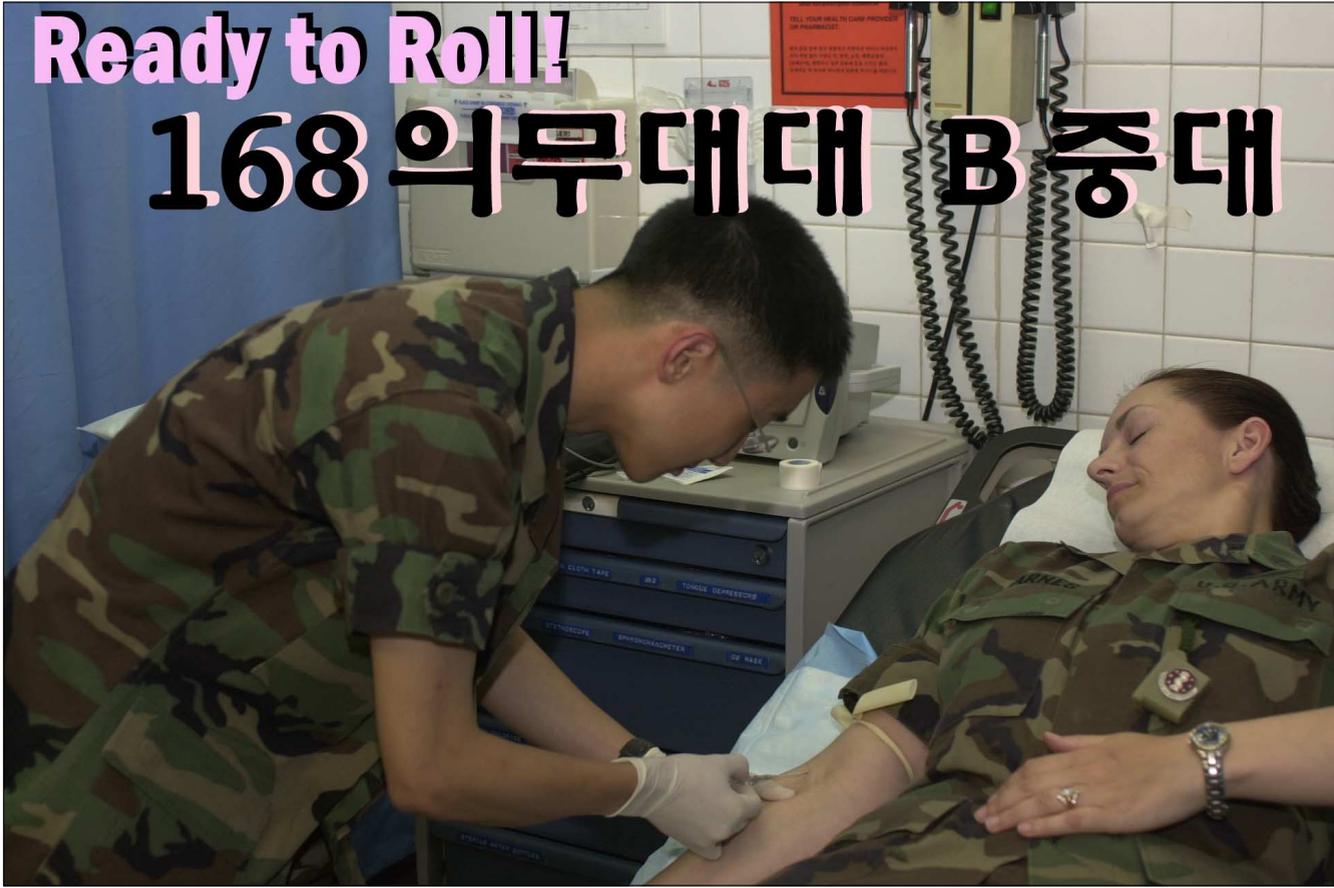
화요일 오전 우연히 TV에서 대구 지하철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이렇게 커다란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게 저 세상으로 가신 고인들께 애도를 표한다. 앞으로는 정부가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 기준을 강화해서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18의무사 168의무대대 B중대 상병 김종우

그 날 저녁 뉴스에서 피해 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일생에서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부모님께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일 것이다. 미군부대에서 군복무하는 카투사 여러분들도 아무런 사고 없이 전역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Ready to Roll! 168 의무대대 B중대



카투사 신문 강병삼

'Medic!', 'Medic!' 어느 전쟁 영화를 보아도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대사가 아닐까? 아비규환 같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채 'Medic!'을 애타게 부르짖는 한 병사의 모습은 아마 낯설지 않은 장면일 것이다. 이번 부대탐방은 바로 이들 'Medic'이 근무하는 18 의무사 168의무대대 소속의 B중대에서 이루어졌다.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에 위치한 121병원과 같이 18의무 사령부 소속인 이들 카투사들은 현재 이 곳에서 근무하는 10명 외에도 춘천에 위치한 Camp Page에 파견근무를 나간 3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168의무대대 B중대에 근무하고 있다. 용산 TMC의 B중대는 본부소대, 트리트먼트(Treatment) 소대 그리고 앰블런스 소대 이렇게 총 3개의 소대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춘천에 파견근무를 나간 3명의 카투사들은 현재 Aid Station에서 근무하고 있다.

각 소대별로 그 임무를 살펴보면, 먼저 본부소대의 경우 1명의 요원이 X선

촬영을 맡고 있고, 인사계에 1명, 공급계에서 2명 그리고 1명의 선임병장을 포함하여 현재 총 5명의 카투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공급계에서는 일반 다른 중대에서 맡고 있는 기본적인 공급일 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를 공급, 관리하는 일도 맡고 있다. 앰블런스 중대는 환자의 수송을 그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앰블런스 중대에는 카투사가 근무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산 TMC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트리트먼트 소대에는 5명의 카투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3명의 카투사 요원들은 환자를 직접 담당하며 환자가 왔을 때 맥박, 혈압 등 기초적인 증상을 검사한 후 간단한 증상들은 직접 치료하고 나머지는 증상별로 분류하여 의사에게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검사실에는 2명의 카투사들이 일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군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결혼 시에 신체 검사를 하며, 용산 지역대에서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들의 취업 전 질병 유무를 검사하는 일 등 그 외에 다양한 일을 한다.

용산 TMC는 그 특성상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 역시 아침 일찍 기상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 약간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5시 45분에 병원이 문을 여는 관계로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카투사 요원들은 5시에 PT를 시작한다. 그 외의 카투사들도 6시에 PT를 시작한다. 이들의 점심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항상 환자들로 붐비기 때문에 병원의 문을 잠시도 닫아둘 수 없는 사정으로 이들은 점심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식사를 한다. 오후 5시 정각에 퇴근하는 일도 드물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이들은 업무 시간 외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on-call이라고 하여 대략 2달을 주기로 주말에 부대에 남아 응급환자가 생길 때를 대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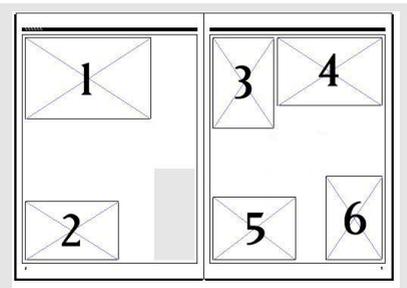
매주 금요일 아침 5시 30분에는 중대가 모여 PT를 한다. 중대 PT 시간에는 Battle Focus PT, Sports PT, 중대 달리기 그리고 행군을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 Battle Focus PT란 말 그대로 전시를 대비한 PT인데 이 시간에는 MOPP Gear를 입고 들것을 들고 뛰거나, 들것을 든 채로 포복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PT이다. 그리고 행군을 할 때에는 대략 10 마일을 걷는다고 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Sergeant's time 시에는 소대별로 모여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트리트먼트 소대의 경우에는 의료기술을 주로 배우는데 이에 심폐소생술, 붕대감기, 야전시의 응급처치 등이 있다. 본부소대는 전쟁이 발발했을 시 대대를 지원하는 교육을 받는다. 주요 과목들

은 무전 통신 교육, 정비 교육, 화생방 교육 등이 있다.

168의무대대 B중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들은 매년 6번 정도의 작전에 참가한다.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작전으로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있는 대대훈련과 EXEVAL(Exercise to Evaluate Training) 그리고 일년에 두 번(많으면 그 이상) 있는 중대훈련이 있다. 작전에 가서 이들이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여러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발생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응급치료를 하는 훈련을 포함해 적으로부터 생화학 공격을 받았을 시 MOPP Gear를 입고 응급치료를 하는 상황 시 치료, 사격 훈련 등을 받는다. 평상시의 업무와 훈련시의 업무의 가장 큰 차이는 훈련 시에는 Mass Casualty의 가정 하에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Mass Casualty란 환자의 수가 의사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를 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와 같이 한 환자를 충분히 살펴보고 치료를 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그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를 분류해야 하는 일이 바로 훈련 시에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작년 미 8군 보드에서 우승하여 '2002년의 카투사'로 뽑힌 168의무대대 B중대 선임병장 염상훈 병장에 따르면 B중대의 카투사들은 종종 업무가 끝나면 서로 모여 농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눈다고 한다. 또한 선임병장을 비롯한 몇 명의 부대원들이 사진촬영에 많은 관심이 있어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부대의 규모가 작고 카투사들의 수도 작기 때문에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도 매우 돈독하다고 하였다.



1. B중대 선임병장인 염상훈 병장이 Rhonda C. Barnes 하사에게 혈관주사를 투여하는 모습
2. 홍상욱 일병이 Killea M. Edward 소위의 혈압을 재고 있는 모습
3. 염상훈 병장이 Cassandra M. Appleman 이병의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
4. Marcus D. Horn 병장(왼쪽)과 박정호 일병이 들것에 실린 환자를 구급차 밖으로 수송하는 모습
5. 야전위생장비(field sanitation)상자를 차에 싣고 있는 Lawrence Parks 병장(오른쪽)과 홍상욱 일병의 모습
6. 염상훈 병장이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있다.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B중대 카투사들 중에서도 특히 트리트먼트 소대에서 일하는 요원들은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신체검사실에서 일하는 두 명의 요원들은 보통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KTA에서 의무병으로 보직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지만 이 외의 3명의 소대원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어학병 보직을 부여받고 부대배치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상식이 부족해 처음에는 많이 힘들지만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한다.

B중대의 큰 특징으로는 미군들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B중대는 선임병장의 주관 하에 매 분기별로 미군들과 함께 서울관광을 떠난다. 경복궁과 민속촌 등 서울에 잘 알려진 관광지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대학



카투사 신문 강병삼

로에서 열리는 '인체의 신비' 전에도 미군들과 함께 다녀왔다. 또한 업무량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12시부터 1시까지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68의무대대 B중대의 Darlene Alicia Delmas 일등상사는 "여기서 일하는 카투사들은 미군들과 달리 특별한 의료교육을 받고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일을 잘한다. 일도 매우 열심히기에 이들과 일하는 것이 매우 즐겁다. 모든 카투사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B중대에서 일하는 카투사들은 특히 뛰어난 것 같다. 올해의 카투사에 뽑힌 카투사도 있듯이 다들 매우 뛰어난 카투사들이다"라고 말하며 B중대의 카투사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B중대의 임인홍 상병은 "양국의 문화차이로 말미암아 가끔 미군과의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쉽게 이겨낼 만큼 여기 있는 미군들과 많이 친해졌다"고 이야기했다.

B중대는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많은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B중대는 대략 75명의 부대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 부대원들은 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들과는 달리 환자들을 직접 대한다. 121병원이 시설도 좋고 장비도 많지만, Area II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이나 카투사들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증상부터 어떤 중병이든지 이 곳 용산 TMC를 거쳐가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가 많고 힘든 만큼 거기서 얻어지는 보람 또한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B중대의 홍상욱 일병은 "항상 업무가 폭주하여 잠시라도 숨을 돌릴 틈이 없다. 그리고 아침 일찍 병원을 개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종종 환자들이 찾아와 증상이 나았다고 내게 감사를 할 때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2002년 올해의 카투사'상을 수상한 B중대 선임병장 염상훈병장은 전국의 카투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다. "솔직히 제가 원해서 온 군대는 아니지만 이제까지의 저의 군생활을 뒤돌아보면 이 시간은 매우 뜻깊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대를 옴으로 인해 빼앗긴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해보면 역시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계획

을 세워서 군생활을 한다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군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18의무사 168의무대대 B중대는 Area II의 '나이팅게일'이다. Area II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들이나 카투사들은 작게는 감기약을 처방 받기 위해서라도 꼭 B중대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B중대원들 중에서도 특히 10명의 카투사 '나이팅게일'들은 부대에서도 막중한 임무를 맡고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화사한 봄이 오는 환절기이다. 감기 환자로 인해 B중대의 업무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전국의 모든 카투사들이 건강에 유의하여 모든 부대의 Sick Call이 한산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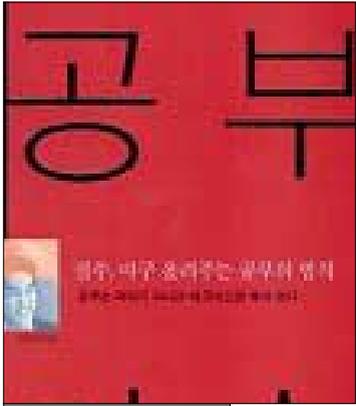
일병 장승모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BESTSELLER

공부기술

조승연 / 중앙 M&B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오른 적이 있는가? 이 책은 머리로는 하는 공부법이 아닌 테크닉으로 하는 공부법 설명서이다. 뉴욕대 경영학과 스티븐비즈니스 스쿨에 재학 중이며 줄리어드 음대 야간 과정도 병행하고 있는, "공부 괴물"이 별명인 저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스로 개발, 적용해오고 있는 공부 쉽게 하는 전략을 실제 저자의 체험 등을 예로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성적을 올리기 원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



WEBSITE

다이어트와 헬스

www.diet-health.co.kr

입춘이 지나고 이제 곧 봄이 다가 온다. 봄, 점점 옷이 가벼워지는 계절이다. 그동안 감춰 두었던 군살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면 올바른 다이어트를 바로 시작할 때! 성인병 운동법 및 근 관절재활, 유산소운동 / 근력운동법, 가정운동 / 스트레칭, 다이어트/보디빌딩, 스포츠영양, 운동에세이, 온라인강의 등을 제공한다. 올바른 운동으로 살도 빼고, 건강미 넘치는 몸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방문해 볼만한 사이트!

카투사 기고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

아시아 최강의 리그를 꿈꾼다 -> K-리그(league)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수원 블루윙즈

96년에 창단, 역사가 짧은 팀이지만 컵대회와 정규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신흥 명문이다. 아시안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우승으로 세계 축구 클럽 순위에서 100위 안에 포함 되기도 했다.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과 김호 감독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짧은 기간에 강호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용병의 의존도가 높은 팀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K리그의 수준을 향상 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작년 시즌 FA 컵 우승을 하면서 체면 치레를 했다.

포항 스틸러스

'포항' 하면, 황선홍, 홍명보, 라데로 이어지는 95년 당시의 황금 멤버를 기억하는 카투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 세 선수가 모두 해외로 이적함으로써 쇠퇴의 길로 들어섰으며 예전만한 성적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작년 시즌 홍명보를 재영입하여 우승에 도전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크로아티아 출신 용병인 메도의 활약이 돋보이며 간판 스타인 이

동국은 상무 입대 예정이고 홍명보는 미 프로축구 LA 갤럭시 팀으로 이적했다.

부산 아이kons

팀내 많은 스타를 해외로 진출시킨 팀이다. 안정환, 심재원, 송종국등을 해외로 이적시키면서 전력과 관중 동원에 큰 손실을 입었다. 지난 시즌 김호곤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차출되자 잉글랜드 출신의 포터필드 감독을 영입했다.

부천SK

러시아 출신의 니폼니쉬 감독으로 유명한 팀이다. 선진 유럽축구를 K리그에 접목시켜 한국축구를 한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니폼니쉬 감독의 후임이었던 조윤환 감독 시절 니폼니쉬의 축구 철학을 한국 축구에 접목시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였으나 계속되는 감독의 교체 속에 하락세를 견고 있다. 현재 터키 출신의 트루판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있다.



제공사진

2002 K리그 MVP 김대의 선수



제공사진

2002 K리그 신인왕 이천수 선수

전남 드래곤즈

2002월드컵에서 개성있는 얼굴 보호대를 선보인바 있는 '배트맨' 김태영과, 출중한 실력과 터프한 매너로 여성팬들의 인기를 사로잡았던 김남일이 활약하고 있는 팀이다. 최근 김태영 선수의 잉글랜드 진출이 무산된바 있으며 막판 분위기 상승을 위해 단기영입한 황선홍 선수 역시 은퇴를 선언했다. 김남일 선수 역시 송종국 선수가 이적한 네덜란드의 페예노르트의 자매 구단인 네덜란드 2부리그팀 '엑셀시오르'로 팀을 옮겼다.

대전 시티즌

최근 몇년 동안 자급난

으로 인해 언론에 자주 이름은 나타낸 팀이다. 선수층이 얇고 구단의 지원이 열악한 관계로 정규리그에서는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전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특히 작년 FA컵 대회에서 우승하는등 FA컵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북 모터스

팀의 간판 공격수였던 김도훈 선수가 전 부천 감독이었던 신임 조윤환 감독과의 불화로 이번 시즌부터 성남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울산 호랑이

유상철, 이천수, 현영민 등 많은 국가대표 출신 스타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 지난 시즌 한경기마다 한골씩 넣겠다는 약속을 지켜낸 괴력의 사나이 유상철이 울산에 잔류하기로 함으로써 아쉽게 놓친 저번 시즌의 우승을 이번 시즌에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도움왕과 신인상을 차지한 이천수의 성장도 울산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41통신대대 일병 이현규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9 장

*누님이 현재 실직 중이신가요?

경기의 침체로 또는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은 그런 연습을 합니다.

Topic: "누님이 현재 실직 중이십니까?"

Is your sister out of work?

주제연구) 실업과 관련된 표현으로 'unemployed' 라는 단어가 있어요. unemployed 와 be out of work 과의 차이점은 표현상 자연스러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ohn is unemployed. 라고 하는 것 보다 John is out of work. 이라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죠.

A: Sally, is your sister out of work?

B: Yes, she is. She used to work at Fox Bookstore before, but you know it went bankrupt.

A: Is she good at accounting? Actually, I am looking for an accountant for my father's company.

B: I think so, she majored in accounting at City College.

번역)

A: 켈리, 언니가 지금 실업상태인가요?

B: 네. 예전에 Fox 서점에서 근무했는데 그 서점이 문을 닫아 버렸거든요.

A: 언니가 회계를 잘 하시나요? 사실, 저희 아버님 회사에서 회계업무 보실 분을 한 분 찾고 있는데요.

B: 잘 할 거예요. 언니는 City College 에서 회계학을 전공했거든요.

덧붙여)

sister 는 상황에 따라서 '언니, 여동생, 누나' 등으로 쓰입니다.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John, where is your sister? 해석은 "존, 네 누나(또는 여동생) 어디 있어?" 이유는 상대방이 John 이라는 남자이기 때문이죠.

Susan, where is your sister? 해석은 "수잔, 네 언니(또는 여동생) 어디 있어?" 이유는 Susan 이 여자이기 때문이죠. brother 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구인 광고 봤어요?

우리와 달리 part time job 이 보편화된 미국에선 신문광고에 'Help Wanted' 가 자주 뜹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연습을 합니다.

Topic : "구인 광고 봤어요?"

Have you seen a Help Wanted advertisement?

주제연구)

직업과 관련된 표현을 몇 개 봅시다. job seeker(구직자), jobless(실업의, 직업이 없는), job fair(직업 박람회) 등이 있지요.

A: Are you still out of job?

B: Yes, since last October.

A: I saw a Help Want advertisement in yesterday's paper.

B: I saw it too. But they only want to hire experienced workers.

번역)

A: 아직 직업이 없으세요?

B: 네, 지난 10 월부터 실직상태입니다.

A: 어제 신문에서 '구인광고'를 봤어요.

B: 저도 봤어요. 하지만 '숙련공'만 원하더군요.

덧붙여) part time job 과 full time job 을 비교해 봅시다. 1 일 4 시간 이하 일주일 20 시간 이하면 일반적으로 part time job 이라 합니다. 종종 part time job 을 3 개나(1일 12 시간근무)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식구들 없이 혼자 사세요?

많은 미국인들은 혼자 살지요. 그러다보니 자연히 외로움을 느끼고 그 결과 불면증이 생기니 자연 수면제의 판매량이 늘어나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부드럽게 "식구 없이 혼자 사세요?"라는 표현을 연습합니다.

Topic: "혼자 사세요?"

Do you live alone?

주제연구) 이 표현을 "독신이십니까?" 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Do you live alone? 은 일반적으로 "부모님 또는 다른 식구들 없이 혼자 사세요?"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Winglish.com

A: Timothy, do you live alone?

B: No, I live with my parents.

A: I've heard your father has just retired.

B: Yes, he has.

번역)

A: Timothy, 혼자사세요? (다른 식구 없이?)

B: 아뇨,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A: 아버님이 최근에 정년퇴직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B: 네, 그렇습니다.

* 누구와 함께 사세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도시인들과는 달리 한적한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규모가 큰 가족 형태를 이룹니다. 오늘은 중소도시의 원어민에게 질문합니다.

Topic: "누구와 함께 사세요?"

With whom do you live?

주제연구)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Do you live with your parents?" 또는 "Do you live with your relatives?" 라고 물어 볼 수도 있겠죠?

A: With whom do you live?

B: I live with my parents and grandparents.

A: Your house must be very big, mustn't it?

B: Not really, but we have a huge backyard.

번역)

A: 누구랑 사세요?

B: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A: 그럼 집이 크겠네요, 그렇죠?

B: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뒷마당은 제법 크죠.

덧붙여)

유럽식 영어의 부가 의문문을 연습합니다. 일반적인 영어에선 "You love me, don't you?" 처럼 하지만 유럽인들은 "You love me, yes?" 또는 "You love me, no?" 같이 표현하지요. 특히 영어에 서툰 불란서 여자들이 자주 이런 스타일을 씁니다. (특히 예쁜 불란서 여자가 이런 식의 부가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무척 귀엽죠.)



MOVIE

갱스 오브 뉴욕

감독: 마틴 스콜세즈

주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1860년대 초 뉴욕의 파이프 포인츠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일랜드 이주민들이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 토박이들은 아일랜드 이주민들을 멸시한다. 결국 두 집단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주민들의 존경을 받던 데드 레빗파의 우두머리 발론은 빌 더 부처에 의해 죽음을 맞는다. 바로 눈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아들 암스테르담 발론은 복수를 다짐한다.



TOP CHARTS

신화

너의 결혼식

2. 점점 / 브라운 아이즈
3. 편지 / 지오디
4. 오래오래 / 이소은
5. 보고 싶다 / 김범수
6. To my love / T
7. 붙잡고도 / 노을
8. 한사람을 위해 / 안재모
9. Good Bye / 이수영
10. 행복했던 기억들은 / JTL
11. Girl / F-IV
12. 잠시만 안녕 / M.C. The Max
13. 나의 사랑 나의 신부 / UN

카투사 신문은 논현동에 위치한 KMTV에서 2집 마무리 활동에 한참인 주얼리를 어렵게 만났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2집 활동을 한 주얼리는 아쉽지만 활동을 마무리짓고 더욱 성숙한 3집을 위해 우리 곁을 잠시 떠난다. 아쉽게 대학교 수능 면접을 보러간 조민아양이 빠진 가운데 인터뷰를 했다.

-자기소개

정아: 제 이름은 박정아이고, 1981년 2월 24일생이고요, 학교는 동덕여대 학생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23살이에요.

지현: 이지현이에요. 83년 10월 12일생이고요, 나이는 이제 새해 지나서 21살. 그리고 학교는 경기대 다닙니다.

인영: 저는 서인영이고요, 1984년생이고요, 생일은 9월 3일이고, 나이는 20살이에요. 학교는 동덕여고이고요.

-주얼리 이름에 대해

정아: 저희의 이름 주얼리에 대해서 많

폰 이별 뿐만 아니라 사랑도 해보고 싶답니다.

-성격

정아: 저는 굉장히 털털한 편이에요. 남들이 보면 터프하단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솔직히 터프한 것과는 거리가 먼, 약간 푼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터프하진 않아요. 거기에다가 소심한 면도 있고, 소심한 면을 감추려고 대담한 척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현: 저도 얼굴을 딱 보면 새침떼기 같을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굉장히 깊고요. 저도 정아 언니같이 털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쉽게 잊고 떨쳐버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인영: 저는 활발하기도 하지만 성격이 급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단순하다고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나서도 금방 잊어



카투사 신문 정승모

르고 싶어요. 영화를 해보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지현: 저 같은 경우는 가수 외에 MC나 드라마 CF 쪽을 해보고 싶어요.

안돼요. 남자답고 잘 챙겨주고 그런 분이면 괜찮습니다.

지현: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모습이든 제 모습을 다 이해해주고, 제 모든 것을 받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깐 제

보석 같은 그녀들의 이야기 주얼리

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주얼리라는 뜻은 보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석의 특성상 처음 그대로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변하지 말자, 항상 처음과 똑같자는 의미에서 주얼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Tonight'에 대해

지현: 'Tonight'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곡의 멜로디 선율이 굉장히 예뻐요. 타이틀곡 Again 보다 듣기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가사 내용이 애절하고 해서 이별하신 분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좀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노래예요.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저희 중에 아무도 사랑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이런 마음 아

버리는 조금 엉뚱한 면도 있어요.

-별명

정아: 제 별명은 많이 얘기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블랙 치킨' 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붙여진 별명이에요. 얼굴이 까맣고, 띠가 닭띠다 보니 탄 닭, 이렇게 불리다가 업그레이드되어, '블랙 치킨'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잠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잠을 굉장히 많이 잤거든요. 그러다보니 애들이 "또 자", "또 자" 그러더니 그게 제 별명이 되어버렸어요.

인영: 별명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 있어요. 제 이름이 인영인데 제 친구들이 뒤에 '자'자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인자'가 되겠죠. 주위 사람들은 '인자', 이렇게 이름 뒷 자에 '자'자를 붙여 그렇게 부르곤 해요.

-가수 외 하고 싶은 일

정아: 이 쪽에 관련되어있는 MC나 연기,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수를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왔기 때문에

계속 무대에서 노래를 부

인영: 저는 가수를 열심히 하고 기회가 된다면 CF를 해보고 싶어요. 말 안하고 하는 CF요.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을 잘 못해서, 말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은 잘 못하거든요.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책

정아: 책 '가시고기'를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재미있으니깐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지현:저는 류시화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류시화씨 책이나 시집은 모든지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인영: 저는 영화도 그렇고 책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태까지 봤던 영화 중에 '분노의 질주'와 알리야 나오는 '드라큐라' 영화를 재미있게 봤어요.

-앞으로 활동 계획

지현: 2집 마무리 작업 잘하고 3개월 동안의 공백기간 동안 굉장히 혹독한 연습에 들어가요. 노래 트레이닝도 그렇고 안무 연습도 그렇고요. 더 열심히 해서 2집보다 더 성숙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음악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주얼리로 3집을 들고 3개월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또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이제 중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 계시는 많은 우리 교민들도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형

정아: 이상형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다워야 하고요, 소심하면 절대

모든 것을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인영: 저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딱 보고 첫인상이 좋다, 느낌이 온다, 그런 사람이 좋아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지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군인이시니깐 모든 카투사 분들 남은 군복무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 추우니깐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미군들이랑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소한 일이라도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을텐데, 한국인의 그 멧멧한 의지로 많이 베풀고, 더욱더 많이 이해해주고, 한국인의 그 넓은 이해심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투사 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얼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

이병 윤종필

Profile

이름: 박정아
 생년월일: 1981년 2월 24일
 신장: 169cm
 학력: 동덕여자대학교

이름: 이지현
 생년월일: 1983년 10월 12일
 신장: 166cm
 학력: 경기대학교 다중매체학부

이름: 서인영
 생년월일: 1984년 9월 3일
 신장: 162cm
 학력: 동덕여자고등학교

